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4. 15. (금)	담당부서	에너지자원정책과
담당과장	주 영 준 과장 (044-203-5120)	담 당 자	노 정 림 사무관(044-203-5118)

주형환 장관,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면담

- 에너지신산업 확산과 원자력 협력방안 논의 -

□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. 15.(금) 서울청사에서 엘리자베스 셔우드-랜달(Elizabeth Sherwood-Randall)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접견했다.

* 한·미원자력협정 고위급 위원회 수석대표로 방한한 셔우드-랜달 부장관은 국방정책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을 담당하는 백악관 조정관을 역임한 후 '14.10월 에너지부 부장관에 임명되었으며 에너지 정책과 국방·외교 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미 정부 내 핵심인사임.

○ 이번 면담에서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.

□ 셔우드-랜달 부장관은 신기후체제의 이행을 위해서는 각국이 발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(INDC)가 성실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, 이와 관련된 한국측의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.

○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계획(2030년 배출전망치(BAU)대비 37% 감축)의 이행을 위해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, 비화석연료(신재생+원전)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'에너지 믹스 정책'의 추진과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제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.

□ 셔우드-랜달 부장관은 '한미 양국간 친환경차 등 클린에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매우 성공적이었다'고 평가하고,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오는 6.1~2.(2일간) 열리는 제7차 클린에너지 장관회의(CEM7, 미국 샌프란시스코)에 한국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.

○ 이에 대해 주형환 장관은 미국의 청정(클린)에너지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기후변화를 부담이 아닌 신성장동력 창출 기회로 기대하면서 에너지 신산업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양국간 구체적 성과를 낼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에 동의했다.

○ 특히 주형환 장관은 전기차 분야를 예로 들면서 국내에서 서로 다른 업종(자동차, 배터리, 금융, 통신 회사 등)간 합종연횡으로 혁신적인 풀이과정을 찾고 있는 '클린에너지 융합 얼라이언스'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기업이 적극적으로인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자, 미국 측은 관련 논의를 추후에 이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답변했다.

□ 양국은 작년 11월 말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(COP21) 계기에 20개국 정상들과 함께 '향후 5년간 클린에너지 부문 공공 연구개발(R&D) 투자 예산을 2배로 확대'키로 한 약속(Mission Innovation)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, 자국 내 준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.

□ 아울러 두 나라는 4.1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원자력협력 고위급위원회(High-Level Bilateral Committee meeting)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, 앞으로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'사용후핵연료 수송, 저장, 처분 분야와 원전해체 분야'에서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. 끝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정권 서기관(☎ 044-203-5121)이나 노정림 사무관(☎ 044-203-51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